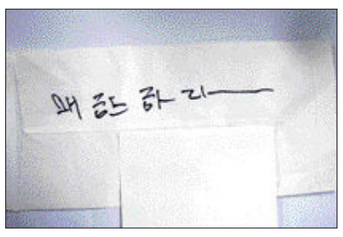
장흥 老부부의 안타까운 죽음

"할멈, 고통없는 세상 함께 갑시다"



뇌졸중 아내 4년 병수발
자신 마저 입원 할 처지
70대, 아내 살해 후 자살

수년간 늙은 아내의 병 수발을 해온 70대 노인이 서로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아내를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오전 8시10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모(75)씨 집에서 한씨와 부인 위모(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손자(17)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할아버지는 한옥 천장 대들보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할머니는 코가 휴지로 막힌 채 질식한 상태였다. 숨진 할머니 몸 위에는 남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매(미)안하다'〈사진〉는 글씨가 적힌 편지봉투가 발견됐다.

처음 발견한 손자는 경찰에서 "학교에 가기 전 인사를 드리려고 할아버지 방문을 열어보니 두 분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주위 사람들은 평소 금슬이 좋았던 할아버지가 4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의 병수발 등을 혼자 도맡아 해왔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2년 전부터 앓고있는 동맥경화·고혈압·당뇨·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이날 장흥 J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기초수급생활자로서 받는 돈(한 달 51만8천원)으로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도 간병인이 없는데다, 집에서 대·소변도 못 가린 채 식사도 못할 아내가 불쌍해 이를 비관, 동반자살을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에는 이혼한 아들과 손자가 함께 살고 있으나, 벌이가 시원찮아 노부부를 돕거나 간호할 처지가 못 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며칠 전에도 아내의 코와 입을 막았다가 그만 뒀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했다는 진술로 미루어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나란히 생을 등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탈출 노린 방화' 최종 결론

'여수 참사' 수사 결과
4명 영장 등 8명 입건

10명의 보호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은 도주를 위한 외국인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여수경찰은 6일 수사결과 최종 브리핑을 갖고 화재 당시 보호소 관리를 소홀히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모 소장을 비롯한 직원과 경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관리과장 김모(52)씨와 화재 당시 상황실장 임모(45)씨, 근무자 오모(39)씨 등 사무소 직원 3명과 경비용역업체 조모(50)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모니터 감시 근무를 소홀히 한데다 화재에 늑장대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다. 관리과장 김씨는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 3층 보호동 304호실 거실의 TV 사물함 앞바닥에서 발생했으며, 방화나 실화 등 인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발표했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보호 외국인들과 달리 옷을 두껍고 입고 있었던 점 ▲왼쪽 발 목 부위에 고무줄을 이용, 현금 13만원을 숨겨 둔 점 등으로 미루어 도주를 위해 단독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여수 참사' 수사 문제점

증거 못찾고 서둘러 마무리
유족 반발·보상 논란 일 듯

경찰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남게 됐다.

경찰은 확실한 목격자나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3차례에 걸친 감식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생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데다, 방화 도구로 추정되고 있는 라이터의 반입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했다.

특히 근무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화재를 키운 점과 방화의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점은 향후 유족 보상 과정에서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와 참사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즉각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만큼 본격적인 보상 범위와 금액 등에 대해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인 희생자 9명의 유해는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화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장례 절차를 유족들과 논의키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인 고(故) 에르킨 씨의 유해는 앞서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국으로 옮겨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나운찬 〈7070〉 김종두

260억 위조 상품권 유통
광산경찰, 3명 검거

광주 광산경찰은 6일 26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유통한 A(39)씨 등 3명을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 5천원권 위조 상품권 520여 만장(액면가 260억원)을 광주·부산·경남 등지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상품권 유통이 줄어든 점을 이용, 지역 오락실에 이들 상품권을 1장당 1천원씩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오락실 10여 곳을 수색, 위조 상품권 2만5천여 장을 압수했으며, 발행업자 B(30)씨 등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상에, 다리 난간을 통째로 훔쳐가다니…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덕진면 장선리를 연결하는 '영덕교'의 3단 알루미늄 난간 400m중에서 116m(시가 3천만원 상당)가 최근 도난당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절단하지 않고 너트를 풀어 해체한 뒤 훔쳐간 것으로 미루어 신설 교량에 재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kwangju.co.kr

수입 금지 복어살 시중에 대량 유통

쌍나팔

○…부산 해양경찰은 6일 성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이 금지된 복어살을 포함해 100억 원어치의 복어 부산물을 수입해 국내 유명 음식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부산 모 수산업체 대표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5명을 입건.

○…정 씨 등은 지난달 10일 12억원어치의 중국산 복어살 24t을 중국산 '흰밀복어'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는 등 지난해 초부터 10차례에 걸쳐 복어부산물 200t(시가 100억원) 가량을 위장 반입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국내 복어생산량 감소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반입한 물량 가운데 150만 명 분량인 150t(시가 76억 원)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고.

○…복어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어 복어살이나 부산물 등 조금이라도 가공된 것은 수입이 금지된 상태.

/연합뉴스

경찰 늑장 출동…노래방 강도 놓쳐

어제 새벽 광주시 학동
손님들과 격투 끝 도주

노래방 강도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으나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경찰이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7번째 노래방 강도사건이 발생, 광주 도심 치안에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6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 동구 학동 H노래방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들어와 배모(43)씨 등 손님 5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배씨는 범인을 잡기 위해 격투를 벌였으며, 그 사이 다른 일행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범인이 도주한 뒤 현장에 도착했으며, 배씨는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배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키가 큰 30대 중반 남자가 갑자기 방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일행이 112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20여 분 뒤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발생한 노래방 강도와 동일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C 100만대 이상 감염
악성코드 유포 3명 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실시간 방송 시청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숨겨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200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스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다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전 세계 TV와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악성 코드가 숨겨진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다.

백씨 등은 이 프로그램으로 100만대 이상의 PC를 감염시킨 뒤 광고물 클릭 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광고주들로부터 3년간 5억6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